

# 서 평 지

서평 제목	“왜”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참가번호	2023-31
도 서 명	정의란 무엇인가	확 인	기재하지 마세요

※ 서평지 2매, 글자수 1,500자 이상(공백제외) 작성  
 ※ 함초롱바탕, 폰트크기(11pt), 줄간격(160%)

##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간단한 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정의의 사전적 정의이다. 그렇다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란 무엇일까? 이것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책에 등장하는 여러 걸출한 철학자들이 수세기동안 답을 찾으려 애썼던 난제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동의를 얻어낸 정답은 없다. 바로 이 점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목소리와 움직임의 원천일 것이다. 이렇듯 불완전한(정의를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사회 속에 사는 우리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기도 하고, 더러는 그러한 비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저자는 2004년에 플로리다를 휩쓸고 지나간 허리케인을 예로 들어 정의의 의미를 두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실적 논쟁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사례는 허리케인으로 인해 시민들의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해당 재화를 보유한 상인들이 가격을 매우 큰 폭으로 올려 폭리를 취함으로써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가격폭리는 부당한가?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위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 없이 순간적이고 감정적으로 판단하여 이런 대답을 한다면, 샌델 교수가 놓아둔 덫에 여지없이 걸려들고 말 것이다. (물론 나도 그 덫을 피해가지 못했다.)

위의 사례는 저자가 놓아둔 수많은 덫들의 예고편일 뿐이다. 저자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봤을만한 현실의 사례들과 거기서 벌어진, 혹은 벌어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소개한다. 그리고는 철학적인 질문과 대답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롤스와 같은 뛰어난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정의로 우리를 이끌었다가, 날카로운 비판으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든다. 단, 저자는 어떠한 견해가 옳은지 또는 그른지에 관해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다만 정의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설명하고 비판하며 우리가 나름의 방식으로 정의(justice)를 정의(Define)해볼 수 있게 도와줄 뿐이다.

당구공을 통해 보는 칸트의 철학

서평 제목	“왜”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참가번호	2023-31
<p>철학은 어렵다. 칸트의 &lt;순수이성비판&gt;, 존 스튜어트 밀의 &lt;자유론&gt; 등 철학자들의 저서는 읽어볼 엄두도 내기 힘들만큼 어렵기로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학을 먼 옛날부터 전해져오는, 우리와 거리가 먼 어려운 학문쯤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저자가 소개하는 사례들은 징병제와 모병제, 마약, 성매매와 같은 사회적 문제, 인종과 애국심 등 대부분 현실에서의 우리 삶과 가깝게 이어져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그 사례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논쟁과 각기 다른 견해들의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여지없이 철학적인 사고가 나타난다.</p> <p>책 속에 언급된 예시로서, 성매매가 법적으로 용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시하고, 그 무엇도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신체를 수단으로써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합당한 행위이며, 이는 법적으로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대해야 한다고 보는 칸트의 입장에서 성매매는 나 자신이라는 인간을 일정한 대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만일 쟁점에 내재된 철학적 사고를 이해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입장을 표출할 뿐이라면 그다지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샌델 교수는 독자들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위해서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p> <p>그렇다면 저명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철학은 어렵고 심오한 학문인데 말이다. 걱정할 것 없다. 샌델 교수가 옆에서 철학 과외를 해주듯 친절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여기서 자율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오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칸트가 말하는 자율이란 먹고 싶은 음식이나 마시고 싶은 음료 등을 자유롭게 고르는 것과 같은 행위가 아니다. 이런 행위들은 나의 이성이 부여한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나의 태생적 선호라든지 광고와 같은 외부적 자극에 의해 ‘조종되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역시 단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p> <p>그렇다면 샌델 교수가 든 예시와 함께 다시 생각해보자.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당구공이 있다. 이 당구공은 물리법칙의 작용으로 인해 지면으로 낙하할 것이다. 이때 당구공에 자율이 존재하는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당구공은 오로지 물리법칙으로 인해 움직일 뿐이니까. 물론 인간도 물리법칙 하에서 움직인다. 하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당구공과 다르게,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은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식욕, 성욕, 수면욕 등 주어진 욕구에 따라 스스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동물은 자율적 존재인가? 칸트는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그것은 욕구와 외부 자극 등에 의해 지배받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다른 그 어떤 요인의 개입없이 이성적 판단을 통해 내린 자신의 도덕법칙만으로 행동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며, 칸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p> <p>어떻게? 앞서 칸트의 철학 중 일부를 그대로 설명할 때보다는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다. 저자는 어렵게 느껴지는 철학자들의 견해와 사고방식을 적절한 사례에 녹여내어 재치 있게 설명해준다. 그냥 들어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을</p>			

서평 제목	“왜”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참가번호	2023-31
<p>철학자들이 말과 글이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보이고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칸트와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밀, 롤스 등 많은 철학자들이 이 책의 독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표출하고, 샌델 교수는 이들의 주장을 우리에게 알기 쉬운 말로 ‘번역하여’ 들려주는 셈이다.</p> <p><b>“왜?”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b></p> <p>‘현재 일본정부는 지금도, 앞으로도 과거의 전쟁범죄에 대해 인식하며 사죄해야 하는가?’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제 하나의 추가적인 질문이 날아온다. ‘왜 그런가?’ 첫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 일부는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더러는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과거 일본의 잔악한 전쟁범죄는 명명백백히 잘못된 행위이다. 하지만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공동체의 과거 잘못에 대해 현재 구성원들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자가 과거 범죄에 대해 현 세대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p> <p>만약 어떤 일본 국민이 “과거에 일어난 일은 분명 전쟁범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선조들이 저지른 범죄이고, 나는 당시의 전쟁범죄에 조금도 일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죄를 하고 책임을 져야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사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런 생각이 ‘도덕적 개인주의’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개인을 사회, 공동체와 분리된 자유로운 존재로 보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라고 하니 팬스레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만 같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을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와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샌델 교수는 이런 철학적 사고의 흐름을 통해 도덕적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책을 읽는 내내 반복될 것이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회문제나 쟁점들에 대해 생소한(적어도 독자들에게는 그럴만한) 시각에서 질문을 던지고, 비판한다. 이 역동적인 수업을 받으며 독자들은 점차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거나 혹은 철학적 사고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욱 공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p> <p>오늘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법, 정치, 경제, 사회 등 수많은 분야에서 참으로 많은 갈등과 논쟁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저마다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자신과 다른 견해를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혹은 근거 없이 상대의 견해를 폄훼하기도 한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 저자가 말하듯, 다른 견해 또는 입장과 정면으로 부딪혀 건전하고 철학적인 논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정의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된다. 샌델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철학적 지식을 제공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혼란’을 선사한다. 이러한 혼란은 건강하고 건전한 혼란이다. 이 책이 선사하는 혼란 속에서 탈출하고자 안간힘을 쓰다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에 대해 ‘왜 그렇냐’고 묻는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이다.</p>			